

■ 박세리 LPGA 코닝클래식 우승

‘골프여왕’ 부활 신호탄 ‘코닝’서 5번째 대관식

미국의 ‘영건’ 모건 프레셀의 거센 추격도 ‘골프여왕’ 박세리(30·CJ)의 우승을 막지 못했다. 한국여자골프의 버팀목 박세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13개월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LPGA 투어 통산 24승.

프레셀 홀인원...한때 2타 뒤지기도 통산 24승...대회 최다승 타이 기록

박세리는 16일(한국시간) 자신의 텃밭인 오하이오주 실베리아의 하일랜드 메도우 스포츠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프레셀(14언더파 270타)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올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던 프레셀은 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잡아내며 한때 박세리를 2타차로 앞섰으나 박세리는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고비마다 버디를 잡아내며 작년 6월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13개월만에 정상에 섰다.

나흘 내내 선두자리를 내놓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궈낸 박세리는 이 대회에서만 다섯개의 우승컵을 수집해 미키 라이트(미국)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갖고 있는 단일 대회 최다 우승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박세리는 신인이었던 1998년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1999년과 2001년, 2003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컵을 차지해 하일랜드 메도우 스포츠장이 텃밭임을 입증했다.

지난 2일 끝난 US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

에 오르는 등 올해 ‘톱10’에 5차례나 입상하면서 서서히 정상계도에 접어들던 박세리는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우승으로 전성기 때의 위용을 되찾았다.

프레셀에 2타 앞선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맞은 박세리가 4번홀과 5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보기를 범한 사이 프레셀은 2번홀(파3)과 4번홀(파4)에서 1타씩을 줄여 오히려 2타차로 앞서 나갔다.

5번홀에서 1타를 잃었던 프레셀은 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박세리가 아니었다. 이 홀에서 버디로 응수한 박세리는 8번홀(파3)과 9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 퍼트를 떨구며 동태를 만들며 접전을 예고했다.

프레셀의 상승세가 후반 들어 파 행진을 계속하며 주춤하는 사이 박세리는 15번홀(파4)에서 다시 1타를 줄이며 1위로 올라섰고 17번홀(파5)에서도 프레셀과 똑같이 버디를 잡아내며 1타차 선두를 유지했다.

갤러리의 환호성이 터진 것은 마지막 18번홀(파5). 박세리는 두번째 샷을 홀 바로 뒤에 붙여 프레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LPGA 박세리 우승일지

2007.7.16 현재

1998 (4승)	● 맥도널드 챔피언십
	● LPGA 투어 오픈
	● 제이미파오웬스클래식
	● 제이앤디클래식
1999 (4승)	● 슐라이트클래식
	● 제이미파오웬스클래식
	● 삼성물산 챔피언십
	● 하이시애틀클래식
2001 (5승)	● 유나이티드스테이트스클래식
	● 폴스브룩스 챔피언십
	● 제이미파오웬스클래식
	● 브리튼니아오픈
	● AFLAC 챔피언십
2002 (5승)	● 오픈스타드
	● 맥도널드 챔피언십
	● 엡시클래식
	● 오하이오LPGA 투어 챔피언십
	● 스포츠윌리엄스C시애틀오픈
2003 (3승)	● 세이브웨이
	● 칩샷 챔피언십
	● 제이미파오웬스클래식
2004 (1승)	● 미셸물리클라온
	(당첨의 찬양 포인트로 추측)
2006 (1승)	●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
2007 (1승)	● 제이미파오웬스 코닝클래식

연말 뉴스포스트 제공

전날 단독 3위까지 올랐던 신에 김민경(19)은 1타를 잃어 버리는 바람에 7언더파 277타로 공동 7위에 만족해야 했고 박진영(21)과 박희정(27·CJ)은 5언더파 279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작년 대회 우승자 김미현(30·KTF)과 LPGA 투어 2년차 이선화(21·CJ)는 4언더파 280타로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우승 원동력

드라이버샷 안정...4R 내내 60대 타수

‘골프여왕’ 박세리가 ‘슈퍼샷’이 부활하면서 골프여왕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한 박세리는 전성기에 못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1998년 데뷔한 이후 7년 동안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과 LPGA 투어 ‘빅3’로 군림했지만 2004년부터 길고 어두운 슬럼프에 빠져 들었던 박세리는 이번 우승으로 다시 최정상급 선수의 위용을 되찾았다.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무려 9개의 버디를 몰아치며 시즌 최스타(63타) 기록을 세운 박세리는 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때려냈다.

박세리가 4라운드 대회에서 나흘 모두 60

대 타수를 낸 것은 2003년 3월 세이프웨이 평 대회 이후 4년여만이다.

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는 올해 김영(27),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실비아 카바렐리(이탈리아) 등 3명 밖에 성공하지 못한 ‘완벽 플레이’의 훈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박세리의 발목을 잡았던 드라이버샷의 불안이 말끔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대회에서 박세리의 페어웨이 안착률은 무려 73.2%에 이르렀다. 자신의 시즌 평균 65%보다 월등히 높다.

티샷이 안정되자 그린 적중률 역시 75%로 치솟았다. 지난 2005년 박세리의 평균 그린 적중률은 60.4%에 그쳤고 슬럼프 탈출의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올해 이 대회 전까지는 66.4%였다.

강력한 티샷과 송곳같이 핀을 향해 쏘아대는 아이언샷 등 과거 박세리를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이끌었던 장기가 살아난 셈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박세리의 강인한 승부 근성이 회복됐다는 점이다. 박세리의 트레이드 마크는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승부사 기질로 ‘불독’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전까지 3라운드를 선두로 나선 대회 9차례 가운데 8차례를 우승으로 장식해 ‘역전 불허’의 명성을 쌓았던 박세리는 이번에도 접전을 펼쳤지만 끝내 우승을 일궈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또 하나의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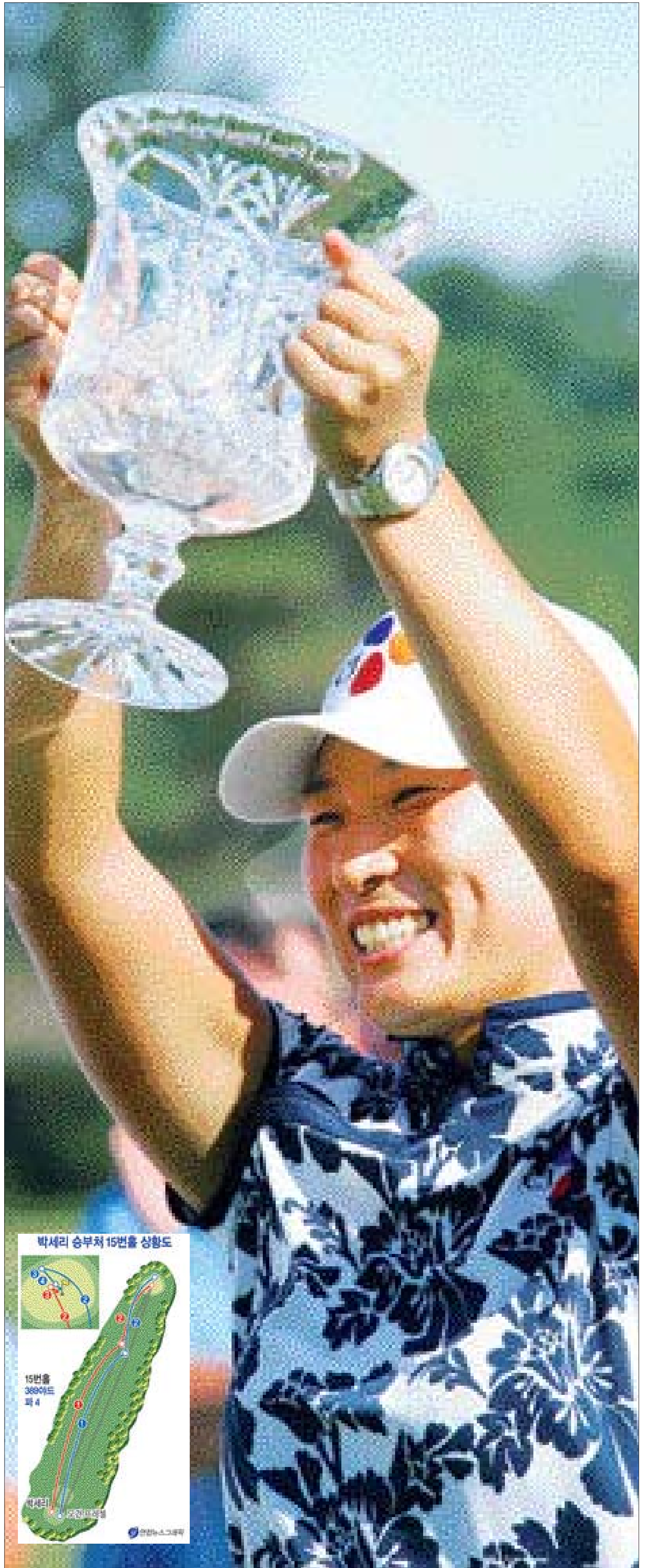
KLPGA 명예의 전당에...국내 두번째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만년니 박세리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달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맥도널드 챔피언십 출전으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박세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우승으로 박세리는 2004년 구옥희(51)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됐다. KLPGA 명예의 전당은 10년 이상의 투어 경력과 있어야 하며 메이저대회 우승이나 최다타수상, 대상 중 1회 이상 수상해야만 하고 각종 대회 우승 포인트를 모아 100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1996년에 KLPGA에 입회한 박세리는 제이미 파 대회 이전까지 대상 3회(12포인트), 최다타수상 1회(2포인트), 메이저대회 5승(20포인트), 정규대회 25승(50포인트), 신인상 2회(4포인트), 공로상 4회(8포인트), KLPGA 주관 국내대회 2회 참가(2포인트)로 98포인트를 획득했다.



박세리가 16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우승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